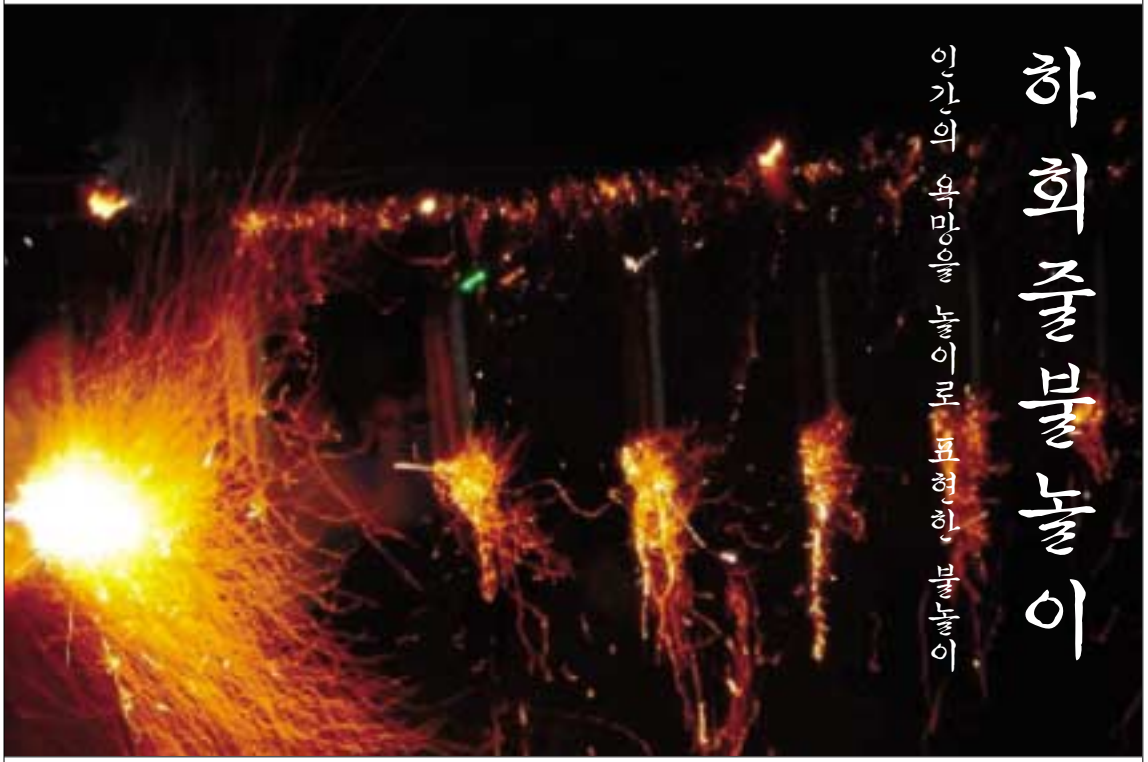


하회불놀이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한 불놀이



불을 소유하기까지 벌였던 인간의 노력은 여러 양상으로 남아있다. 불의 시원과 소유화의 과정은 장구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집단의 신화로 남아있고, 그 신화를 통해 아득한 그때의 일들을 집단적으로 생생하게 기억해 내고 있다. 그만큼 불은 인간에게 장엄한 존재였다는 증거다. 그러나 불을 소유한 인간은 불을 그대로 두지 않고 소유의 개념을 통해 권력화하고, 한편으로 놀이화했다. 문명이 곧 불의 쓰임새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불을 가지고 노는 놀이를 통칭하여 화희(火戲)라 부른다. 말 그대로 불놀이인데, 횃불놀이를 비롯하여 등불놀이, 불꽃놀이, 굴등놀이 등 종류도 갖가지다. 굴등놀이는 높은 장대 두 개를 세우고 등줄을 걸어맨 다음 20여 개의 촛불을 담은 큰 바구니를 매달아 줄을 흔들며 공중에서 둥글둥글 도는 등불을 구경하는 놀이다. 물론 이들 놀이가 불놀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놀이판 주변에 등이나 불

을 밝혀 가무백희를 놀기도 하여 이들 놀이판은 화려하고 성대하기 이를 데 없다. ‘어둠을 밝힌다’는 불의 특성이 반영되어 주로 밤에 노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한 불놀이

전통사회에서 화희(火戲)는 궁중에서부터 민간과 사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궁중에서는 국가의 공적인 연희를 비롯하여 왕의 사적 연희를 벌일 때 대규모의 연등(燃燈)과 등수(燈樹), 등산(燈山)이 설치되었다. 등수는 등을 나무에 걸어둔 형태이며, 등산은 가설 무대인 산대에 등을 걸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들은 그 형식이 어떻든 간에 연희장을 밝히는 조명구실을 하거나 화려한 꾸미개 구실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놀이라 할 화희는 오늘날 대보름놀이를 확인되고 있는 쥐불놀이나 달맞이, 횃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이다. 놀이와 더불어 하나의 의례성이 띤 화희이기도 한데, 그

연원을 따져보면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

놀이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화회 가운데 화산잡희(火山雜戲)가 있다. 화산은 물론 불을 밝혀 놓은 산대(山臺)를 가리킨다. 산대가 산대놀음 따위와 같은 민속놀이를 하기 위하여 가설한 임시 무대이니 화산잡희는 불 밝힌 산대에서 노는 가무백희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다. ‘고려사’에 화산잡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신돈은 연등회 때 화산(火山)을 설하였다. 문무대신 수 백명을 인솔하여 좌우에 대열을 만들었다. 등이 백만 개도 넘는 듯 보였고 그 모양 또한 매우 교묘하고 기이했으며, 여러 가지 잡희(雜戲)들이 아주 성대하게 벌어졌다.

화산에 걸린 등이 백만 개가 넘었다고 과장하고 있으나 수많은 등불을 밝혔다는 점과 등의 모양도 가지가지였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이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 기록이 조선 후기의 세시풍속지인 <동국세시기>의 등명(燈明)이다. 이 책에는 등명에 쓰인 등이 수박등, 마늘등을 비롯하여 29가지의 등이 있다고 낱낱이 열거되어 있다. 고려 시대의 풍습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화산은 곧 등산(燈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민간에서 행해진 전통적인 화회라 할 수 있는 것이 ‘줄불놀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 마을에서 행해지는 불놀이를 하회마을에서 전승되다가 단절되고 다시 복원되었다. 하회마을은 별신굿놀이를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별신굿은 다른 마을의 동제(洞祭)와는 달리 해마다 행하지 않고 3년이나 5년, 또는 10년에 한 번씩 행한다. 이 별신굿에 여러 탈들이 등장하는데, 하회탈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별신굿놀이라는 이름보다 하회탈놀이를 일컬어질 정도다. 바로 이 놀이를 노는 하회마을에서 줄불놀이를 행했다.

권력과 위계를 표현한 줄불놀이

줄불놀이는 ‘낙화놀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7월 보름날 밤 부용대 아래에서의 시회(詩會)와 결들인 일종의 뱃놀이다. 비용은 하회마을의 유씨들이 부담

하고 타성(他姓)들은 노력을 동원하였다고 한다. 이 점을 들어 줄불놀이는 반상(班常)의 위계와 경제적 우열을 반영한 놀이라 함직하다. 놀이기구를 만들어 줄을 걸고 배를 띄우는 여러 노력은 당대의 위계상 양반이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고, 놀이에 소용되는 비용 역시 상민이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테니 이 또한 양반 몫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줄불놀이는 욕망과 권력의 표현이고, 엄연한 위계를 반영한 놀이라 하겠다.

줄불을 하려면 뽕나무 솥을 갈아서 솥가루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소금을 섞은 다음 찡호지로 만든 좁고 긴 봉투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몇 개의 매듭으로 묶어 긴 새끼줄에 매단다. ‘줄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런 모양새 때문이다. 줄불에 불을 붙이면 마치 대보름날에 생대나무를 불태워 터뜨리는 폭죽(爆竹)과 같이 요란한 소리가 나지만 화약 대신 솥가루를 쓰기 때문에 크게 폭발할 염려는 없다. 그저 요란한 소리만 낼 수 있다면 좋다.

하회마을에서 줄불놀이가 가능한 까닭이 여러 가지이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을의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싶다. 하회마을은 낙동강이 큰자 모양으로 감싸 흐르고 있고, 강가에 만송정(晩松亭)·겸암정(謙庵亭)·옥연정(玉淵亭)들이 즐지어 서 있다. 이들 사이에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진 부용대(芙蓉臺)가 들어서 있어 낙화놀이를 펼치기에는 안성맞춤의 지형이 아닐 수 없다. 천혜의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불을 놀이화한 것이리라.

부용대에서 건너편에 있는 만송정까지 길고 큰 줄 두 가닥을 매고 여기에 솥 봉지를 줄줄이 달아맨다. 솥가루와 소금을 섞어 봉투에 담아 묶은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런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느 놀이보다 돈이 많이 드는 놀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난다.

이렇듯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보름달이 떠올라 휘영청 밝을 때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된다. 만송정에서 불을 붙인 마른 쭉을 봉지에 대면 봉지에 불이 붙을 것이고, 이 때 부용대에서 줄을 조금씩 당기면 대롱대롱 매달린 봉지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고 탄다. 요란한 소리와 함

깨 화려한 불꽃이 꽃가루처럼 우수수 강으로 쏟아져 내린다. 화약을 사용한 폭죽에 익숙한 이즈음의 젊은이들에게는 높이도 굉음도 아니겠지만 인공적이 아닌 천연재료를 써서 이같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는 하회 사람들의 지혜를 놓칠 수 없다. 특히 하늘의 보름달을 배경삼아 물 위와 물 아래 그려진 줄불의 시각적 효과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일이 이쯤되면 불은 이제 인간의 쾌락적 놀이로 변한 셈이다. 신화의 영역에서 벗어나와 유희(遊戱)의 난장으로 모습을 바꾼 것이다. 촌로의 증언에 의하면, 아래로부터 불을 붙일 때 줄을 따라 타 올라가는 모습은 장관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줄불을 서너 곳에 설치하여 놀았다 하니 말만 들어도 감동적이다.

타는 불과 꺼지는 불의 아름다움

줄불놀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불놀이가 또 하나 있다. 이른바 ‘달갈불’이라는 것이다. 평소 식용으로 달갈을 쓸 때 꼭지만을 잘라 보니 모습이 깨지지 않게 한 빈 달갈을 모아 두었다가 그 속에 피마자기를 가득 넣은 다음 솜심지를 박고 짚으로 만든 포아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짚 포아리의 부력에 의해 달갈불이 물에 뜨게 하려는 배려에서다. 달갈불은 결국 달갈에 박은 심지에 불을 붙인 채로 물에 띄워 보내는 놀이다. 주로 부용대 위쪽에 자리잡은 형제바위에서 마치 연등을 물에 띄우듯 띄워 보낸다. 수십 개의 달갈불들이 물결을 타고 천천히 옥연정 앞으로 흘러내리면서 맴돈다. 크자형 물길에 빛어낸 장관이 아닐 수 없다. 근래에는 달갈불이 번거롭고 크기가 작아서인지 바가지를 활용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바가지에 기름을 담고 심지를 박아 불을 붙여 띄우다 보니 규모에서 찍이나 풍성하게 보인다. 물론 100여 개의 바가지를 쓰니 불빛 또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하지만 달갈불이 연출한 아기자기한 맛과 올망졸망한 불빛은 얻기 어렵다. 얻는 게 있다면 잃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달갈에서 바가지로의 변화가 가져다 준 득실이 아닐까 한다. 달갈불이 하나의 장관을 이룰 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놀이의 흥취와 장관을 더하려는 뜻인데, 달갈불

이 옥연정 앞에 맴돌 무렵 젊은이 서너 명이 부용대 절벽 마루에 대기하고 있다가 솔가지 다발에 불을 붙여서, “낙화야!”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강으로 내던진다. 불붙은 솔가지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지만 물에 비친 솔가지 다발의 불빛과 그 불빛의 명멸은 더욱 아름답다. 타는 불도 아름답지만 꺼져가는 불빛도 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일이 이 정도이면 시인의 감흥은 절로 시가 되고, 가객의 노랫소리가 절로 나올 법하다. 그래서일까. 예전에 양반들은 강 위에 배를 띄우고 기생들을 태워 시창(詩唱)을 하며 놀았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인간이 지닌 본능적 호사성일지 모른다.

달갈불과 유사한 놀이가 방석불놀이이다. 이 놀이는 물 위에 수십 개의 방석을 띄우고 그 위에 관솔불을 얹어 타는 모양을 구경하는 놀이다. 평양 대동강의 연광정 앞에서 많이 놀았다 하며, 관솔불이 타다가 짚방석에 붙은 불은 그야말로 불바다를 이루었다 했으니, 하회에서 볼 수 있음직한 달갈불과 다를 바 없을 성싶다.

이들 모두는 어쩌면 인간의 내재된 심리 속에 불을 붙여 태우고, 그 불빛에 희열을 느끼는 쾌락주의적인 유희성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놀이하는 동물’이라 했던가. 그리고 인간이 꿈꾸는 모든 욕망을 놀이 화하고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화희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화희(火戱)를 설명하다 보니 갑자기 어렸을 때 놀았던 딱총놀이가 떠오른다. 그 때는 몰랐지만 딱총놀이 역시 어린 시절의 욕망을 표현한 놀이가 아니었을까. (55)

